

OECD DAC 동향

(2013. 2. 28)

경협기획실 정책연구팀

1. Development Issue

① DAC 통계지침상 양허성 수준(Concessional in Character) 관련 논의

○ (논의의 진행)

- DAC은 EIB(European Investment Bank)를 다자개발은행으로 분류하고 동 기관의 최근 3년 지원액을 ODA로 불인정하여 EU에서 반발*

* DAC 통계지침은 “양허성 수준”을 “시장금리보다 양호한 수준”이라고 명시하나, 차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자체로 적격인지, 그와 동시에 보조금을 통해 그 차이를 보전 받아야 하는지 회원국 간 해석차

- 동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EU의 DAC 내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

- DAC은 현 통계지침이 DAC 회원 중 유일한 다자기구인 EU의 지위와 EU 자금의 통계보고 방식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판단, EU가 직접 통계지침에 참가할 법적지위에 대한 문안을 제출토록 제안하고 제출문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 회신을 요청 ('13.2.1)

- (EU 제출문안 주요 내용) EU는 DAC 회원국이자 양자원조 공여국(bilateral donor)으로 DAC 통계지침 적용 대상이며, EU의 개발정책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EIB의 개발활동에 재무적 보증 제공

- (EDCF의 OECD 앞 회신 내용) EU 제출문안에 관해 반대의견은 없으나, EU 회원국이 분담하는 EIB 차관이 양자원조로 이중 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
○ 본 건은 제956차 DAC 정례회의('13.2.20) 의제로 채택

- DAC은 EIB 차관과 같이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여 시장금리로 지원하는 차관 중 보조금(Subsidy)을 받지 않는 지원금은 ODA로 불인정해 왔으나, 보조금 지원 여부를 보고하지 않는

회원국에 대해서 아래의 세 가지 안을 제시

- ① 모든 차관을 ODA 차관으로 포함하되, 지원 조건에 대해 완벽한 투명성을 확보하고, “이들 국가가 지원한 차관의 일부는 시장이자율을 상회함”이라는 주석을 기재
 - ② 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국가의 모든 차관을 통계에서 제외
 - ③ 개별 차관의 지원조건을 심사하여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ODA로 인정
- **(회의결과)** 한국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은 투명성 (Transparency)과 동등대우(Equal Treatment) 원칙을 강조하고 사무국의 제시안 중 1안과 3안을 통합한 절충안에 관한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

② DAC 內 기후금융에 관한 연구 및 논의 확대

- OECD DAC은 최근 다수의 기후금융 관련 회의를 개최
 - 기후금융 재원 조달 방안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목적

Research Collaborative on Tracking Private Climate Finance

- OECD 환경국(ENV)과 개발협력국(DCD) 간 민간기후금융 관련 공동연구 (RC) 발족
- 2월 13-14일 OECD에서 관련 워크숍 개최
- 3대 주요 연구 분야 선정
 - 민간기후금융 총액 측정
 - 선진국 공공부문이 동원(mobilise)한 민간기후금융 측정
 - 민간기후금융에 대한 데이터수집, 추적(tracking), 평가 (특히 선진국 공공부문이 동원한 민간기후금융의 경우)
- OECD 투자위원회, 환경정책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도 동 RC에 협조 예정
 - "Green FDI" 측정 방식 개발 등
- 개발도상국의 민간기후금융을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적 가능할 것으로 기대

OECD Workshop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(IFIs) on Tracking Climate Finance

- 2월 15일 DAC 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-operation(ENVIRONET)과 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가 공동 개최
- MDB와 DAC Rio marker*의 기후금융 추적(tracking) 방식 비교
 - * DAC 통계지침상 UNFCCC의 기후변화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원조를 별도로 분류
 - MDB들은 최근 공동으로 비교적 정량적인 기후금융 추적 방식 개발
 - 반면, Rio marker의 기후금융 추적 방식은 비교적 정성적
 - 두 방식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음을 발견하고 두 방식을 조화시킨 체계 개발에 합의
 - MDB 공동 추적 방식을 기반으로 Rio marker의 방식을 보다 정량적으로 개선
- 향후 논의 방향
 -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양허성 자금의 기후금융 포함 여부
 - 보증 등 위험분담 방식을 통해 선진국 공공부문이 동원(mobilise)한 민간기후금융 측정

-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'80년대 후반부터 시작
- 논의의 초점은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(mitigation)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(adaptation)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확대
- 기후금융 재원이 조성되고는 있으나 재원규모의 확대와 전반적인 기후금융 메커니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
- OECD는 기후금융 관련하여 공공재원의 전략적 역할, 민간재원의 활용,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권고

2. DAC 회원국 동향

① 일본(JICA), 방글라데시에 사상 최대 규모 차관 제공 (2/20)

- 3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7억 7천만 달러 이상 제공
 - Greater Dhaka 지역 도시고속철도(MRT:Mass Rapid Transit) 건설
 - 전력이 부족한 서부에 저온실가스(low-GHG) 가스화력발전소 건설
 - 국책사업으로 전 국토에 변전소 및 송전망 구축

② 아이슬란드의 DAC 가입을 위한 특별검토(Special Review)* 최종보고서 발표 (2/20)

* DAC 가입 후보국의 ODA 정책 현황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원활한 가입을 진행하기 위한 약식 동료검토 절차

- 특별검토는 '12년 11월-'13년 1월, 3개월 간 실시되었으며 호주와 덴마크가 심사국으로 참여
- (원조실적) 2011년 순ODA 2천 6백만 달러
 - 주요 수원국은 우간다, 말라위, 모잠비크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
 - 주요 공여 분야는 사회 인프라 구축 및 생산 부문
- (강점) 원조 예산 증대 의지 확고 및 개발협력 관련 법적 기반 확립
- (개선점) 외교부와 ICEIDA(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)의 관리 체제 강화,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개선 등
- (결론) DAC 회원국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로, 해당국은 DAC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

③ 미국(USAID)-영국(DfID) 간 Humanitarian Innovation Initiative 발족 (2/21)

- 美 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(DIV)의 일환으로 경진대회 우승 사업 지원 예정
 - 실험 사업을 통해 일정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는 최대 1천 5백만 달러까지 지원
 -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1백만 달러까지 지원
- 피난처 건설, 구호 정보 취득 등 인도적 지원에서 GPS, SMS 날씨경고시스템 등을 넘어선 혁신기술 도입을 시도

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 (DIV)




- 개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진대회로 USAID에서 매 분기 실시
 - 벤처캐피탈 방식에서 영감
 - 적은 금액을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여 성과를 내는 사업에만 투자를 지속하는 방식
- 2010년부터 2,000명 이상이 지원하였으며 현재 19개국에서 실험 사업을 시행 중
- NGO(56%), 민간(31%), 학계(13%)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

④ 영국(DfID), EU의 개발협력 활동에 관한 Balance of Competences Review 보고서* 발간을 위한 증거자료 요청(Call for Evidence) (3/1)

* '12년 7월 영국에서 발족한 프로젝트로 각종 분야에서 EU의 성과와 경쟁력을 평가하고 영국에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예정. DfID는 30여개의 보고서 중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id Report 담당 ('13년 여름 발간 예정).

- 3월 1일까지 공개적으로 증거자료 수집
 - 서면제출, 이메일, 온라인 설문조사 등
- 영국의 개발협력 예산 중 15%가 EU를 통해 지출되는 만큼 이번 보고서의 분석 내용은 매우 중요
- 예상 쟁점 분야는
 - EU를 통해 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의 강약점
 - EU 개발협력 예산 지출의 투명성
 - 개발협력 정책과 타분야 정책의 일관성 등

3. OECD/DAC 주요 일정 (2/25-3/15)

	<p><i>Platform on Effective Institutions 회의</i></p> <p>(개요)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7-28일 양일 간 개최 (의제) 효과적 제도 지표 및 측정,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위험 평가, 변화 관리 및 Making Reform Happen, 책임 있고 포용적인 제도 등</p>
	<p><i>제958차 DAC 정례회의</i></p> <p>(의제) 빈곤 근절(2025년 목표) 및 불평등 완화, 아이슬란드 특별검토 최종보고서, SLM 의제* 등</p> <p>* 잠정의제로 개발금융, 녹색성장, 불법자금흐름 채택</p>
	<p><i>제959차 DAC 정례회의</i></p> <p>(의제) 미정</p>